

韓國齒科醫學界概觀[上]

崔 正 奉 (在·美 L. A.)

- ◇…… 다음에 紹介하는 글은 1960년에 發行된 대한치과의학연구회지에 게재된……◇
- ◇……內容을 再收錄하여 解放直後の 齒科醫學界의 諸般現況은 勿論 學術活動 및……◇
- ◇……日帝時 發表된 論文의 目次가 거의 全部가 담겨져 있어 30년이 지난 지금……◇
- ◇……에도 적지않게 參考가 될것으로 믿고 2회에 걸쳐서 連載한다. 어려운 與……◇
- ◇……件아래에도 훌륭한 玉稿를 執筆하여 주신 崔正奉 先生께 感謝의 意를 表……◇
- ◇……한다. <編輯子 註> ……◇

序 說

우리나라가 過去 36年間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政策 밑에서 말할 수 없는 압박과 서름을 받았다.

그러나 解放 15周年을 맞이한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敵愾心만을 鼓吹當해온 젊은 世代는 暗黒時代에 대한 올바른 識見을 가질수 없었다.

이제 第2共和國이 탄생된 이 마당에서 멀지 않아 닥아올 學국의 “르네상스”를 바라보며 우리의 前世代가 逆境 속에서 남겨 놓은 文獻을 中心으로 이 글을 만들어 보았다.

筆者는 機會 있을 때 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自身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齒科의학이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主張하고 싶다.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의 先輩들은 沿革史조차 만들어 놓지 못했으며 믿을만한 史料 한조각 가지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6·25動亂만이 그들의 辨明을 合理化시켜주는 가장 좋은 防牌였을 뿐이다.

齒科醫術의 傳來

여기서 論하려는 齒科의술은 科學文明의 세례를 받은 西洋齒科醫術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齒科의술이 傳來된 것은 두가지 經路를 밟았다고 본다.

하나는 日本을 거쳐 들어 왔고, 또 하나는 美國을 통해 直接 우리에게 紹介된 것이다.

萬若 大院君이 鎖國政策을 쓰지 않았다면 齒科의학 역시 日本을 거치지 않고 直輸入되었을 것이고, 지금 日本齒科界를 능가했을 것이나 不幸히도 우리는 日本보다 33年 늦게 日本人 齒科醫師의 入國으로부터 한국齒科界의 幕이 오르게 되었다.

即 日本은 1860年 美國人齒科의 사인 W.C. Eastlake氏로부터 齒科醫術을 받아 들였고 우리는 1893

年 日本人 野田應治氏가 仁川에서 開業을 始作함으로써 幕이 올랐다. 當時 우리나라엔 在來의 醫生(漢醫師)들과 極少數의 外國人의 사들이 있었을 뿐 齒科의사라곤 한사람도 없었다. 그는 日本 高山齒科醫學院現(東京齒大)에서 工夫를 했으며 數年後 內務省施行 齒科醫術開業試驗에 合格하자 곧 仁川으로 와서 開業을 했으며 이듬해 1894년에 서울로 移轉해서 30年동안 머물러 있었다.

뒤이어 重城養二(1904), 檜崎東陽(1905), 飲塚徹(1905)氏 등이 來韓했으며 1914년에는 總督府醫院에 柳樂達見氏가 왔고 生田信保氏는 1918년에 來韓했는데 한국齒科界의 開拓者들이다.

이보다 늦게 美國宣敎部를 통하여 來韓한 齒科醫師들이 있다. 이들은 勿論 美國人들이며 1915년에 來韓한 W.J. Scheifly氏를 비롯하여 1921년에 J.L. Boots氏와 J.A. McAnlis氏 등이 Severance病院을

中心으로 많은 일을 했다. 口傳에
依하면 韓大偉라는 韓名을 가진 美
國人齒科醫師 David Edward Ha-
hn氏가 1910年頃 서울에서 開業을
했다한다.

最初の韓國人 齒科醫師

韓日合併後 數 많은 日本留學生들
이 생겨났다. 그 中에서 咸錫泰氏
는 日本齒科醫專을 1912년에 卒業
하고 귀국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
으로서 처음으로 齒科醫師가 된 분
이다. 林澤龍(1922)氏도 同校出身
이다.

韓東燦氏는 1917년에 東京齒醫專
을 卒業하였고 金昌圭(1919), 李熙
昌(1921), 高明天(1925)氏 등이 같
은 學校를 卒業하였다.

李順伊(1929), 崔錦鳳(1930), 洪
善嬪(1930), 崔正燾(1931) 등은 東
京女子齒科醫專을 거쳐 齒科醫師가
된 女性들로서 異彩를 띠었다.

우리나라에서 最初の 齒科醫師
(檢定)試驗이 1921년에 施行되었으
며 總應試者 38名中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高相穆氏만이 合格되었
다.

그後 이러한 制度下에서 齒科醫
師免許를 받은 이는 裴珍極(1922),
李成模, 金然權氏 等이다.

1925년부터는 해마다 數十名의
한국인 齒科醫師들이 輩出되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設立
된 京城齒科醫學校 卒業生들이다.

安鍾書, 金용진氏 等이 一回卒業
生으로 다음해 1926년에는 李鍾坤,
文箕玉氏 等이 卒業하였다.

이로보아 現在 우리나라에 있는
齒科醫師들의 構成狀態는 海外出身
檢定出身, 京齒出身으로 大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齒科教育機關의 設立

우리 나라에 온 수많은 日本人
치과의사 가운데 柳樂達見氏는 특

히 한국에도 齒科教育機關이 있어
야겠음을 절실히 느끼고 有志를 物
色하다가 富田儀作氏의 도움으로
京城齒科醫學校를 設立하였다.

이 學校는 1922년에 設立認可를
얻었고 그해 4月 15日에 朝鮮總督
府醫院에서 66名의 新入生과 더불어
開校式을 올렸다.

1925年 2月에는 總督의 指定을
받아 卒業生은 누구나 無試驗開業
을 할 수 있는 特典이 부여되었고
1929年엔 專門學校로 昇格하였다.

朴明鎮, 李有慶, 殷仲基氏 等은
京城齒科醫專專門學校를 나온 第1
回 卒業生이며 解放되기까지 第17
回 卒業生 500餘名을 배출시켰다.
1946年度부터는 國立서울大學校,
齒科大學으로 再發足하였다.

齒科醫師들의 團體活動

우리나라에 最初로 창립된 齒科
醫師會는 1912년에 서울에 있는 日
本人 치과의사들이 만든 京城齒科
醫師會이다.

그러나 1925년에 京城齒科醫學校
卒業生이 나오자 日本에서 귀국한
咸錫泰氏를 中心으로 韓國사람만으
로 된 漢城齒科醫師會가 생겨 은연
중에 京城齒科醫師會와 對立하였으
며 1942년에 強制로 兩齒科醫師會
는 合同되었다.

朝鮮齒科醫師會는 檜崎氏의 發起
로 1921년에 창립되었으며 처음에
個人別로 加入되었으나 나중엔 各
地方別로 團體的인 加入制로 바뀌
었고 1932年엔 朝鮮連合齒科醫師會
로 改稱되었으며 그 산하에 各道齒
科醫師會가 全國的으로 設置된것은
1940年 以後였다.

朝鮮齒科醫學會는 柳樂氏의 發起
로 1918年 겨울에 창립되었으며
1932년까지 韓國을 代表할 수 있는
唯一한 會學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25년에 大阪齒專을 나온
趙東欽氏가 韓國사람으로서는 最初

로 發表會壇上에 올랐다. 「三叉神
經痛을 全沒시킨 一例」를 第7回
朝鮮齒科醫學會(1927)에서 發表했
던 것이다. 이 當時 韓國人은 58名
이 加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2年 京城齒科醫學會가
탄생되면서부터 이 兩會는 善意的
競爭을 하기 시작했다.

柳樂氏가 京城齒專의 校長을 歷
任하게 되자 이 學校를 中心으로
京城齒科醫學會가 構成되었으며 朝
鮮齒科醫學會는 京城市大醫學部 齒
科教室을 中心으로 움직이게 되었
다. 會長으로는 生田信個氏가 맡아
일하였다.

兩學會 모두 學會誌를 發刊하여
會員들의 學究欲을 滿足시켜 주기
에 努力했으며 朝鮮齒科醫學會誌는
1925년에 創刊되었다. 위와 같은
환경 밑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무엇
을 연구 발표하였는지를 잘 살펴보
자.

韓國人齒科醫師의 研究業績

大部分의 韓國人 齒科醫師들은
開業醫로 進出했으며 教育기관에
종사하는 極少數의 사람들이 醫學
博士學位를 얻기 위해 연구에 몰두
하는 정도였다.

그중에 裴珍極氏 城大醫學部에
있는 德光教授의 지도로 口腔粘膜
에 미치는 光力學의 作用을 研究하
여 1940年 12月에 그의 論文이 東
京帝大 教授會를 通過하게 되었다.

이것은 韓國人齒科醫師로서 最初
의 慶事였으며 더구나 獨學으로 努
力한 點에서 높이 評價되었다.

朴明鎮氏는 京城齒專에서 講師職
을 가지고 있었으며 城大 杉原教授
의 指導로 1943年에 學位를 받았
다.

아래에 있는 「리스트」中 (68)과
(74)가 그의 學位 主論文이다.

城大 齒科學教室에 있는 趙昊衍
氏도 1944年頃 學位를 획득하였다.

그는 주로 弗化 나트륨에 관한 研究를 깊이 하였으며 그의 副論文 역시 이에 관한 것으로 “리스트”中的 (53)과 (61)等이다. (主 論文은 未確認)

潘泰攸氏 역시 城大 齒科學教室에 있었으며 生田氏의 지도로 1945年 8월에 學位를 받았다. 그의 主論文은 (77)과 (78)이다.

以上은 學位를 획득한 分들의 研究業績에 不過하며 그밖의 分들도 연구에 힘을 다하였을 줄 믿는 바이나 80餘篇의 글 중에서 네 사람의 글을 除하고 나면 과연 Originality를 가진 글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래에 있는 文獻目錄은 當時의 醫藥系雜誌에 실려 있는 글들을 年代順으로 나열한 것에 不過하며 個別的인 內容分析은 다음으로 미루겠다.

1930年度

- (1) 北方朝鮮人の 食物(裴珍極)
日本口腔衛生 12卷 129號 1930年 9月
- (2) 齒槽膿漏(安鍾書)
朝鮮醫報 1卷 1號 1930年 11月

1931年度

- (3) 韓國時代의 齒科業界에 對하여(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2號 1931年 2月
- (4) 智齒周圍炎으로 因한 下顎骨枝 骨膜炎의 一例(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4號 1931年 4月
- (5) 福岡縣下에 있어 地方病的 齒牙形成異常의 一例(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5號 1931年 5月
- (6) 眼窠蜂窩의 一例에 對하여(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7號 1931年 7月
- (7) 唾液腺內泌의 藥理的研究(朴熙俊)
日本藥理學雜誌 12卷 3號 1931年 7月
- (8) 齒齦에 發生한 血管腫 一例(安

鍾書)

- 朝鮮醫報 1卷 3號 1931年 8月
- (9) 齒牙病竈中心感染이 一例에 對하여(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9號 1931年 9月
- (10) 朝鮮江原道の 地方性齒牙疾患에 對하여(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9號 1931年 9月
- (11) “완산”氏 “안기나”의 一例에 對하여(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10號 1931年 10月

1932年度

- (12) 腸기부스에 繼發한 上顎骨骨疽의 一例(李成模)
朝鮮之齒界 3卷 1號 1932年 1月
- (13) 口腔外科領域에 있어 自家血液療法에 對하여(李昌楨)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卷 2號 1932年
- (14) 壞血病의 治驗例(李成模)
朝鮮之齒界 3卷 5號 1932年 5月
- (15) 齒科學 講座(殷仲基)
醫生醫學 4, 5, 6號 1932年 10~12月
- (16) 下顎骨骨髓炎에 併發하는 咬筋壞死의 一例(李成模)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卷 4號 1932年

1933年度

- (17) 慢性肥大性齒齦炎 臨床的 及 組織學的 所見(裴珍極)
朝鮮醫學會雜誌 23卷 5號 1933年 5月
- (18) 上顎全齒齦에 發生하는 小圓形細胞肉腫의 一例에 關하여
大日本齒科醫學會雜誌 31卷 1號 1933年 7月
- (19) 短時間 鑄造法에 對하여(朴明鎮)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卷 2號 1933年 8月
- (20) 稀有한 口腔지프테리의 一例(裴珍極)
齒科學報 38卷 11號 1933年 11月

(21) Rivanol의 根管內 藥用(夏多極)

- 滿鮮之齒界 2卷 11號 1933年 11月
- (22) 朝鮮人의 智齒發生 困難症의 統計的 觀察(趙吳衍)
滿鮮之齒界 2卷 12號 1933年 12月

1934年度

- (23) 顆粒白衛球減少症에서 본 壞疽性 口內炎의 一例(裴珍極)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0卷 2號 1934年 7月
- (24) 血液型, 齒弓形 及 口蓋容積과의 相關關係에 對하여(朴明鎮)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2號 1934年 8月
- (25) 補綴裝置의 數學的 觀察(朴明鎮)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 4號 1934年 12月
- (26) 成人의 齒齦에 生인 水癌의 一例(裴珍極)
日本之齒界 179號 1934年 12月
- (27) 朝鮮人에서 본 Bolk氏의 Paramolar ‘Distmolar’ 五例(鄭保羅)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 4號 1934年
- (28) 下顎第三大白齒의 埋伏狀態分類과 그 簡易한 拔去法(鄭保羅)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 4號 1934年
- (29) 二三燭煤添加의 石膏強度에 미치는 影響(安正浩)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 4號 1934年
- (30) 全身麻酔劑 Incisin의 應用例(金仁煥)
滿鮮之齒界 3卷 10號 1934年 10月

1935年度

- (31) 鼻中隔에 接近하여 埋伏한 上顎犬齒의 一例(裴珍極)
滿鮮之齒界 4卷 2號 1935年 2月
- (32) 硬口蓋 正中線部에 나타난 骨

膜下膿瘍의 一例(鄭用國)

滿鮮之齒界 4卷 5號 1935年 5月

(33) 亞砒酸의 知覺神經 또는 運動神經에 미치는 作用에 對하여(朴明鎭)

京城齒科醫學會雜誌 4卷3號 1935年

(34) 先天齒의 二例에 關한 組織學的 研究(裨珍極)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1卷 3號 1935年 9月

(35) 上顎洞內에 發育한 齒齦腫의 手術(趙吳衍)

滿鮮之齒界 4卷 12號 1935年12月

(36) 興味있는 根管內 異物의 一例(趙吳衍)

滿鮮之齒界 4卷 12號 1935年12月

1936年度

(37) 齒牙로부터 吸收된 亞砒酸의 新陳代謝에 미치는 影響(金仁煥)

滿鮮之齒界 5卷 5號 1936年 5月

(38) 下顎에 發現하는 骨纖維腫의 一例에 關하여(裨珍極)

大日本齒科醫學會雜誌 34卷 2號 1936年 11月

1937年度

(39) 最近 處置하는 外科的 臨床(朴鎔德)

滿鮮之齒界 6卷 2號 1937年 2月

(40) 上顎癌의 一例(裨珍極)

滿鮮之齒界 6卷 6號 1937年 6月

(41) 興味있는 破折注射針 剔出(金仁煥)

滿鮮之齒界 6卷 7號 1937年 7月

(42) 臨床上 稀有한 頤癭二例(金喆庸)

朝鮮醫報 7卷 3號 1937年 9月

(43) 兄弟에서 本 過剩齒의 症例(安正浩)

滿鮮之齒界 6卷 10號 1937年10月

(44) 二三의 持續的 解熱作用을 가진 藥物의 鎮痛作用에 對하여(朴明鎭)

京城齒科醫學會雜誌 5卷4號 1937

年

(45) 興味있는 膿胞性 齒牙囊의 一治驗例(朴鎔德)

滿鮮之齒界 5卷 12號 1937年12月

(46) 所謂齒槽膿漏症의 統計的 觀察(金喆庸)

朝鮮醫報 7卷 4號 1937年 12月

1938年度

(47) 光力學的作用이 齒牙發育에 미치는 影響, 特히 이와 脾臟及網狀組織內細胞系統과의 關係(裨珍極)

朝鮮醫學會雜誌 28卷 1號 1938年

(48) 口腔內感染과 健康(李有慶) 醫生醫學 72號 1938年 6月

(49) Benzol 及 그 誘導體가 運動神經纖維에 미치는 影響(朴明鎭)

① Benzol 及 Benzol 核水素原子 一個가 簡單한 Alkyl基 CnH_{2n}+1, Halogen, Nitro基 No₂, Amino基 NH₂ 또는 Cyan CN을 가지고 置換하는 것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卷1號 1938年

(50) 化膿性 齒牙炎(金仁煥)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卷1號 1938年

(51) 네가 考察한 廻轉局部 咬合器에 對하여(朴明鎭)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卷7號 1938年

(52) 柴胡의 家兔體溫에 미치는 作用(朴明鎭外 2名)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卷2號 1938年

1939年度

(53) 弗化 Natrium過剩 投與의 齒牙及 其支持組織에 미치는 影響(趙吳衍)

① 母體에 있어 弗化나트륨 中毒이 乾兒齒牙에 미치는 영향

② 家兔及 Rat 海冥의 齒牙와 그 支持組織에 미치는 영향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4卷 3, 4號

1939年

(54) 重症인 下顎骨體部 骨折의 一治驗例(朴鎔德)

滿鮮之齒界 8卷 2號 1939年

(55) 4個의 癒合齒를 가진 一兒童의 臨床術(金敬運)

口腔科學 7卷 3號 1939年 3月

(56) 京畿道管內 朝鮮人 青年團員과 朝鮮人 特別志願兵 第一期生의 齶蝕罹患率(尹麟九 外)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卷4號 1939年

(57) 小兒齒咬合面 中央異常咬頭結節의 臨床例(李有慶, 李良淑)

滿鮮之界 8卷 10號 1939年 10月

(58)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作用의 研究(裨珍極)

①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作用과 網內系와의 關係

朝鮮醫學會雜誌 29卷 11號 1939年 11月

②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作用과 大網膜과의 關係

同上 29卷 12號

③ 肝臟機能障礙時에 보는 體內性 光力學的 物質과 網內系와의 關係

④ 口腔粘膜의 紫外線感受性과 網內系와의 關係(同上)

1940年度

(59) 顎下腺 唾石病의 一例(趙吳衍)

滿鮮之齒界 9卷 1號 1940年 1月

(60) 膽汁中毒과 網狀織內皮細胞系統機能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裨珍極)

朝鮮醫學會雜誌 30卷 1號 1940年

(61) 弗化 나트륨 過剩投與의 齒牙及 其支持組織에 미치는 影響(趙吳衍)

③ 毒體의 弗化나트륨 過剩投與가 그 胎兒齒牙에 미치는 影響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5卷 1, 2號 1940年

(62) 小白齒 咬合面 異常咬頭結節

로 인한 慢性 根端性齒槽膿瘍을
惹起한 一例(朴鎔德, 崔宗善)
滿鮮之齒界 9卷 3號 1940年 3月

(63) Therapoli의 齒科的 應用(李
迥桂)
滿鮮之齒界 9卷 6號 1940年 6月

(64) Benzol 誘導體가 運動神經纖
維에 미치는 영향(朴明鎭)
② Phenol類
③ 安息香酸類
京城齒科醫學會雜誌 8卷3號 1940
年

(65) 齒牙의 蒼鉛吸收에 關한 分光
鏡의 研究(朴明鎭)
日本藥物學雜誌 29卷 1, 2號 1940
年 7月

(66) 天先의 瑠璃質缺損의 一患者
에 있어 18個의 Porcelain Jac-
ket Crown과 8個의 Cast Cro-
wn을 裝着한 一症例(李有慶)
大日本齒科醫學會會誌 38卷 1號
1940年 7月

(67) 齒牙萌出障礙로서의 流唾症의
一例(潘泰攸)
大日本齒科醫學會會誌 38卷 2號
1940年 10月

1941年度

(68) 蒼鉛劑와 鉛劑 投與家兔의 口
腔內 器官에 依하 蒼鉛과 鉛沈着
에 關한 分光鏡의 檢索에 對한
研究(朴明鎭)
日本醫學輯報 藥物學 14卷 1號
1941年

(69) 鉛劑投與家兔의 口腔組織에
있어 鉛沈着에 關한 分光鏡의 檢
索(朴明鎭)
日本藥物學雜誌 31卷 2號 1941年
2月

(70) 朝鮮 咸鏡北道 吉州溫泉附近
에 發生한 地方病性齒牙發育障礙
症의 一例(潘泰攸)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6卷 1, 2號
1941年 4月

(71) 齒槽膿漏의 豫防(慶光 珍極)

厚生醫界 22卷 1941年 4月
(72) 結核과 齒牙口腔保健(慶光 珍
極)

厚生醫界 23號 1941年 5月
(73) 京畿道管內 朝鮮人青年團員의
口腔衛生狀況(尹麒炳 外)

京城齒科醫學會雜誌 9卷2號 1941
年 6月

(74) 아드레나린, 피로칼핀及 아브
르핀 投與家兔의 鉛劑投與後의
口腔內器官에 依한 鉛沈着에 關
한 分光學의 檢査에 對하여(朴明
鎭)
日本醫學輯報 藥物學 15卷 2, 3號
1942年

(75) 舌繫帶 過短症(高補韶)
臨床齒科 14卷 4號 1942年 4月

(76) 齒根管門의 動脈(新井鎔德)
解剖學雜誌 20卷 3號 1942年 9月

(77) 乳酸 스트론튬 弗化 Na 메분
粉投與, 白鼠齒牙 及其 支持組織
의 形態學의 變化比較(潘泰攸)

(78) 乾酸 스트론튬 弗化 Na 上皮
小體別出 家兔齒牙 及其支持組織
의 形態學의 變化(潘泰攸)

(79) 所謂 斑狀齒三例에 對한 臨床
的 組織學의 觀察(潘泰攸)

(80) 自然治癒機轉을 取하 水齧二
例(潘泰攸)

(81) 先天의 梅毒性 牙關緊急. 一
例(潘泰攸)

註·(77) 以下는 潘泰攸氏의 學
位 論文과 副論文의 題目들인데 언
제 어디에 發表했는지는 모르겠고
忠武市에 있는 本人에게 問했으
나 아직 回答을 받지 못했음.

위의 文獻目錄은 決코 完全한 것
이 아니나 90% 以上이 여기에 收
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目錄에 있어서는 韓國人 齒科醫가
쓴 글이 最初로 雜誌에 發表되기는
1930年 9月이 되는셈이다. 그後 15
年 동안 많은 글이 發表되었을 것
이나 解放直前엔 出版事情의 惡化

로 發表할 길이 막혔을 것이고 또
1940年 以後는 所謂 大東亞戰爭으
로 因하여 研究欲은 위축 一路로
걸었을 것이다.

때문에 筆者는 韓人齒科醫師들의
研究發表意欲이 가장 왕성했을 기
간을 1930年으로부터 1940年까지의
約 10年으로 보는 마이다.

이동안 韓人齒科醫師들은 비록
主導權을 日本人들에게 빼앗겼을
망정 비교적 自由로운 분위기 속에
서 極少數가 消極的인 研究活動을
해왔으며 大部分의 齒科醫들은 安
易한 生活態度에 滿足하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韓國의 齒科界를 위해 일
할 기회를 갖지 않았고 個人的 營
利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韓國齒
科醫가 길이 기억해야 될만한 위대
한 人物이 나오지 못하였다고 본
다.

우리의 進路

우리는 過去 70年間的 韓國齒科
界를 돌이켜 볼때 크게 失望할 수
밖에 없는것은 아직도 우리의 손으
로 이루어진 學問으로서의 韓國齒
科醫學의 發達을 찾아 볼수 없고
다만 齒科醫術을 배운 一種의 技術
者들 손아귀 속에서 희롱당하고 있
는 似而非學問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齒科界의 發展과 後進
性的 克服은 오직 젊은 齒科醫學徒
들에게 달려 있다.

病을 고치는 技術만을 배우는 것
이 齒科醫의 全目的이 될수 없음을
깨달아 우리는 나아가 齒科醫學을
學問으로서 研究할 수 있는 科學者
를 育成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施設과 人材가 具備된
齒科醫學研究所를 만들어 젊은 後
進들이 定心하고 研究에 沒頭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할 것이다.